

한 줄 한 줄 언어로 쌓아올린 ‘열정의 산물’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가들 ‘금남로 가는 길’ 제19호 출판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가들의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9호·전일출판) 출판기념식이 20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신춘문에·광주일보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이날 출판 기념식에는 광주일보신춘문학회(회장 채희운·이하 문학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작품집 출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집에는 24명 작가들이 1년여 간 준비했던 시, 소설, 동시, 동화, 수필 등 다양한 신작들이 수록됐다. 한 줄 한 줄 언어로 쌓아올린 작품마다 작가들의 열정과 눈물, 기쁨이 오롯이 배어 있다.

소설 부문에는 박이수, 이연초, 이원화, 이은유, 차노휘, 홍광석 씨의 작품이 게재됐고, 시 부문에는 노창수, 박승자, 배세복, 이수행, 이준섭, 전원범, 정려성, 정도전, 최건 씨의 작품이 수록됐다. 동시와 동화 부문은 손동연, 조기호, 김경락, 김목, 박찬성, 안수자, 윤삼현, 정해진 씨의 작품이 수록됐다. 수필 부문

에는 유일하게 김옥에 씨의 작품이 실렸다.

광일문학회 채희운(광주여대 교수) 회장은 “한 편 한 편 모든 회원들의 치열한 작가정신과 그것을 가능케 한 세계관과의 드잡이질이 손에 잡힌 듯이 다가와서 마음이 아련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그 결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회원 스스로에게 다시 추인시키는 행위는 사실 거룩하기조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 침체된 지역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2016년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이 같은 명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장르별 적잖은 문창들이 응모했다. 올해 응모작은 모두 1276편. 분야별로 시 1006편, 소설 124편, 동화 146편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문



시·소설·동시·동화·수필 등

작가 24명의 작품 실려

침체된 지역 문학계에 ‘활기’

창들의 문학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삶이 버거울수록 문학적 열정이 오히려 되살아난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향간에 떠도는 문학의 위기나 문학의 위축과는

변별되는 얘기다.

예년 수준의 응모현황과 달리 작품 수준은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체적인 면에서 왜 문학을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성찰이 작품에 일정 부분 투영됐다는 의미다.

한편 ‘금남로 가는 길’에는 제11회 광주일보문학상으로 선정된 안영옥 씨의 ‘우리들의 할머니’와 심사평, 수상 소감도 실렸다. 지난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다람이와 할아버지’로 등단한 안 작가는 광주여성문학상, 우송문학상을 수상했다.

최종 심사를 맡은 소설가 채희운 광주여대 교수와 동화작가 윤삼현 광주교대 겸임교수는 “다소 호흡이 긴 서사적 전개에서 작가 특유의 입담을 엿볼 수 있다”며 “할머니의 백색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의 오브제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화로서의 예술성을 신뢰케 한다”고 평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남녀의 솔직 화끈 연애 이야기

코미디 연극 ‘연애의 목적’ 상무지구 기분좋은 극장

‘솔직하고 화끈한 연애 이야기’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연애의 목적’(사진)이 16~31일, 2월 13일~28일(월요일 공연 없음)까지 광주 상무지구 기분좋은 극장(우체국보험 7층)에서 공연된다.

대학교 화제작인 ‘옥탑방 고양이’의 박은혜 작가와 악어컴퍼니가 의기투합해 제작한 작품으로 연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인공은 잘 나가는 매력 만점 개그우먼 고세리와 귀여운 외모에 달콤살벌한 매력을 지닌 카페 아르바이트 학생 구수에. 두 여주인공이 공유하는

못 남성들과의 연애담은 생각만큼 환상적이지 않고, 결코 순탄하지 않다. 탄탄한 스토리와 공감 가는 대사, 반전 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유용·김성준·이윤경·최혜정·노다윗·신보희 씨 등이 출연한다.

공연장 내에 비치된 인스타그램 프레임을 이용해 ‘연애의 목적’ 관련 사진을 찍어 보내면 다양한 상품을 제공 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기분좋은극장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비 50주년 지면 혁신

편집진 개편·문학중심성 강화

작년 신경숙 표절 사태로 곤욕을 겪었던 문예계간지 ‘창작과비평’(창비)이 20일 50주년 기념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편집계획을 발표했다.

잡지는 편집진을 새로 구성하고, 문학중심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지면을 개편한다. 또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문예지를 만든다.

창비는 이날 새로운 편집진을 공개했다. 강일우 출판사 창비 대표이사가 발행인과 편집인을 맡고, 한기옥 인제대 교수와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새로운 편집주간과 부주간으로 선임됐다. 한 주간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해 계간지 창비의 편집을 총괄한다. 강 발행인·편집인은 계간지 발행의 법적 책임만 지고, 편집권을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지난 50년간 창비의 편집진을 맡았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윤수 발행인, 백영서 주간과 함께 작년 말 퇴임했다.

또한 계간지 형식의 ‘젊은 문예지’를 올해 하반기 펴낼 예정이다. 편집인은 젊은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등으로 구성되며, 편집권 역시 완전히 독립된다. 지면은 시, 소설, 평론, 산문, 만화 등 여러 장르로 구성된다. 창비 50주년 기념호인 2016년 봄호는 내달 20일께 출간된다. /연합뉴스



“광주 탐험,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꼈죠”

문화관광탐험대 장덕도서관서

2월 26일까지 ‘광주의 美’ 사진전

“탐험대원들 모두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광주의 새로움을 없을 것만 같았는데 발로 뛰고 마음으로 다가서니 새로운 광주가 있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이 지난 해 운영한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가 오는 2

월 26일까지 광산구 장덕도서관 1층 갤러리에서 ‘광주의 美’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제5기 문화관광탐험대원 18명이 참여했으며 ‘문화관광탐험대 광주견문록 V’에 수록된 낙암정 고풍은행나무, 광주폴리 등 광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25점이 전시된다.

제5기 대원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매주 광주의 명인·명소·명품을 발굴했다. 탐험대원은 그 래픽디자이너, 지하철역장, 개인택시기

사, 전통시장 아나운서, 숲해설가, 방송작가 등 다양한 직업과 이력을 지닌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문화관광탐험대는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 자발 활동가 모임으로 광주 곳곳을 누비며 광주의 명인, 명품, 명소 등 숨겨진 광주의 매력을 발굴, 이를 인터넷 블로그와 ‘문화견문록’ 발간을 통해 시민에게 소개해왔다. 문의 062-670-746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경매 출품 ‘삼국유사’ 인쇄본 도난품?

3억5000만원짜리 보물급

장물 의혹에 경매 중단



경매에 출품돼 화제를 모았던 ‘삼국유사’가 도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매회사 측은 삼국유사에 대한 경매를 즉각 중단했고,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경찰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다.

문화예술 경매회사 ‘코베이’는 경매 전날인 지난 19일 삼국유사 권2 ‘기이편’이 도난품이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와 경매를 즉각 중지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리는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었던 삼국유사는 현재 보물 419-2호로 지정된 성암고서박물관장본과 동일본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가 경매시장에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

로 예상됐다. 경매 시작가는 3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경매 하루 전 해당 작품이 1999년 도난 신고된 ‘대전 삼국유사 목판 최초 인쇄본’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매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삼국유사를 출품한 현 소장자는 정상적인 가격을 치르고 구매했으며 장물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수사당국과 연계해 현 소장자가 삼국유사를 입수한 경위와 장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